

조건의 평등과 근대의 조건: 토크빌과 겔너의 비교 연구

조 홍 식 | 송실대학교

이 연구는 19세기 민주주의 사상가 토크빌과 20세기 민족주의 이론가 겔너가 근대사회에 대해 매우 유사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첫째, 토크빌과 겔너는 모두 평등을 근대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파악한다.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근대사회에서는 정태적 및 동태적 평등이 모두 발전하고 평등주의 사상이 지배적으로 부상한다. 둘째, 토크빌의 귀족사회/민주사회의 이분법 시각이나 겔너의 수렴채취사회/농경사회/산업사회의 삼분법 시각은 모두 전(前)근대/근대의 질적 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역사 철학을 공유한다. 셋째, 평등을 축으로 한 근대(민주사회/산업사회)는 세속화, 추종주의, 이성의 독점적 지배, 민족주의 등의 공통적 경향을 드러낸다.

주제어: 근대, 평등, 민주주의, 토크빌, 겔너

I. 근대성의 사회과학자로서 토크빌과 겔너

프랑스의 19세기 사상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대표한다. 그의 업적 중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1961a; 1961b)와 『양시앵 레짐과 혁명』(1952a; 1952b)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과 자유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논의하였다.¹⁾ 미국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토크빌이 강조했던 민주주의의 교훈은 시민의 평등이 강조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전제적 국가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토크빌은 이상적인 민주사회는 정치적 자유라는 기제를 통해 평등

1) 자유주의의 사상가로서 토크빌에 대한 연구는 아론(Aron 1967), 마닝(Manent 1993), 람베르티(Lamberti 1983), 니스벳(Nisbet 1993), 슈라이퍼(Schleifer 1980)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홍태영(2001), 이용재(2009), 서병훈(2011) 등의 연구가 있다.

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부정적 효과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20세기 체코 출신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겔너(Ernest Gellner)는 구조 기능주의적 민족 및 민족주의 이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Breuilly 2006, xx). 겔너(2006)는 민족을 영속적 사회 집단으로 보거나 장기 역사적 현상으로 인정하는 이론의 정 반대편에 서서 민족과 민족주의 현상을 근대 산업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근대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이론가다. 기존의 민족이 민족주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어낸다는 입장이나(Gellner 2006, 54), 산업 사회가 기능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이동성은 민족이라는 문화적 공간 속에서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는 주장(Gellner 2006, 62)에서 그 사고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상호 이질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19세기 민주주의 사상가 토크빌(1805-1859년)과 20세기 민족주의 이론가 겔너(1925-1995년)를 선구적인 근대성의 사회과학자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토크빌과 겔너를 21세기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영감과 분석의 근원으로 다시 조명한다. 정치사상 분야의 규범적 논의와는 별개로 사회과학의 창립자로서 토크빌의 위상은 오래 전부터 주목 받았다.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비른봄(Birnbaum)은 『토크빌의 사회학』(1970)이라는 저서를 통해 토크빌 특유의 사회현상의 분석 틀을 확인하였다. 심지어 최근 들어 엘스터(Elster 2009)는 토크빌을 ‘최초의 사회과학자’(first social scientist)라고 명명할 정도로 토크빌은 사상가보다는 새로운 과학의 창시자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민주주의 사상가나 민족주의 이론가라는 베일을 걷어내고 토크빌과 겔너를 비교 분석해 보면 많은 공통점이 드러난다. 이들이 근대성과 근대 사회를 바라보고 거시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에 서구를 연구하는 토크빌과 20세기 후반 이미 상당히 진화한 산업 사회를 관찰하는 겔너지만, 이 둘이 공통적으로 짚어내는 근대성의 특징은 ‘조건의 평등’(égalité des conditions)이다. 토크빌에게 평등은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서로 다른 길을 통해서,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궤도이자 운명이다. 겔너에게도 사회이동성과 평등주의는 근대 산업사회의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그 정치적 산물 또는 기능적 대응이다.

인류 역사의 전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토크빌과 겔너는 유사성을 띤다. 토크빌의 시각에서 인류는 과거 귀족사회(société aristocratique)에서 근대의 민주사회(société démocratique)로 변화하고 있는데, 각각 사회에는 서로 다른 인간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인류(deux humanités)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변화가 있

다고 본다.²⁾ 켈너 역시 “인류 역사의 구조”라는 거대한 부제가 달린 『쟁기, 갈, 책』(1988)에서 세 부분의 역사 단계를 구분하였다. 그는 인류가 수렵채취사회에서 신석기혁명을 통해 농경사회로,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사회로 변화해 왔다고 설명한다. 고고학과 인류학의 발전으로 20세기의 켈너는 선사시대까지 포함하는 역사 철학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토크빌과 마찬가지로 경제-생산(쟁기), 정치-강제(갈), 문화-지식(책) 등 인간과 사회의 세 영역에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평등의 문제의식이나 총체적 변화의 역사관에 이어 여기서 비롯되는 사회적 현상의 설명에 있어서도 토크빌과 켈너는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토크빌은 민주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조건의 평등’이 가져오는 필연적 경향 및 결과로 설명한다. ‘조건의 평등’은 민주사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는 ‘생성적 사실’(fait générateur)이기 때문이다. 켈너도 생산과 지식과 강제 영역에서 일어나는 획일화 경향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사회가 ‘생성’하는 다양한 현상의 설명을 시도한다.

토크빌과 켈너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근대사회를 규정하는 공통점을 발굴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 19세기 전반과 20세기 후반에 150여 년의 시간적 거리를 두고 근대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한 두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조건의 평등을 근대의 핵심으로 간파했다는 사실은 자연과학에서 ‘실험의 재현’에 해당하는 확인 과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토크빌이 19세기 전반기 미국사회를 탐구하면서 조건의 평등을 사회의 구성 원칙으로 인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 후반기 민족주의의 확산을 관찰하면서 켈너는 개인의 평등주의가 근대 산업 사회의 필수적인 특징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필연적 사회혁명과 공산주의의 도래를 예언했던 맑스의 분석이 역사를 통해 부정되었듯이, 토크빌은 켈너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토크빌은 기존 사상의 영역에서 사회과학적 관찰과 분석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대했지만, 켈너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축적한 기존 사회과학의 발전에 의존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켈너가 토크빌을 확인해 주는 것은 150년이라는 근대의 심화와 확산의 경험 뒤에 세계를 관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덧붙여서 그 사이에 이뤄진 사회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인류학, 고고학 등의 발전에 비추어 한층 복합적이고 치밀하게 토크빌의 영감이나 주장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두 세기에 걸친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은 인

2) 토크빌(1961a, 5)은 평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에는 새로운 과학이 필요하다면서 귀족사회에서 민주사회로의 변화가 매우 커다란 질적 변화임을 명백히 한다.

류의 역사에 대한 훨씬 많은 지식을 생산하도록 하였고, 겔너는 토크빌이 접할 수 없었던 자료와 시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시장 이론과 경제학은 19세기와 20세기 내내 세계를 해석하는 틀에서 세계를 재편하는 준거로 발전하면서 조건의 평등을 형식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겔너는 이 같은 지식과 현실의 상호작용을 통한 평등의 확산을 토크빌보다 더 잘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겔너는 20세기 후반 무척 전문화된 학문의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식인으로 인류 역사의 구조를 논하면서, 동시에 토크빌과 마찬가지로 평등을 근대의 필요조건으로 중시한 사상가다. 엘리아스(Elias 1982), 티리(Tilly 1990), 기든스(Giddens 1985), 만(Mann 1986; 1993) 등은 모두 거시 역사적 관점에서 민족국가와 자본주의로 특징지어 지는 근대의 형성에 대해 연구했지만 그 누구도 겔너만큼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겔너는 토크빌의 영감과 분석을 재확인해 주고, 보충하면서, 계승하는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공통점을 발판으로 삼아 토크빌과 겔너를 비교하면서 근대성의 분석을 전개한다. 첫째는 근대성의 특징 또는 기본 원칙으로서 평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토크빌과 겔너를 통해 살펴본다. 둘째, 토크빌과 겔너가 제시하는 귀족사회에서 민주사회로,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가 근대성으로의 돌입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검토한다. 셋째, 새로운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하나의 '생성적 사실'이나 설명 원칙에서 도출해 내는 것이 가능한지 논의한다.

II. 조건의 평등

19세기에 새롭게 태동하는 근대 사회를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규정하는가는 사회과학 설립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라고 할 수 있는 맑스(Marx), 베버(Weber), 뒤르켕(Durkheim) 등 제 각각이었다. 맑스(2008)에게 근대 사회의 특징은 자본주의라는 생산 양식이었고 계급투쟁이라는 생산 관계였다. 베버(2010) 역시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자본주의 생성의 윤리적 근원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베버(1978)가 보는 근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합리성으로 함축된다고 할 수 있다. 합리성은 자본주의는 물론 합리적이고 법적인 논리의 관료제와 근대 국가의 정수(精髓)이기 때문이

다. 뒤르켐(2007)은 사회적 분업을 근대 사회의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사회 통합과 분열의 문제에 주목했다.

반면 이들보다 조금 앞서 활동한 토크빌은 조건의 평등을 미국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영국의 산업 혁명 등을 통해 부상하는 새로운 세상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제시하였다.³⁾ 수 세기에 걸친 유럽의 기독교 사회를 연구하고, 신세계 미국 사회를 탐방한 뒤 토크빌(1961a, 5)은 “조건의 평등의 점진적 발전은 매일같이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운명적 사실(fait providentiel)”이라고 규정한다. 운명이라는 표현이 잘 응축하고 있듯이 평등의 발전은 개인이나 집단 등의 의도나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변화의 방향을 의미한다. 토크빌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조건의 평등이 발전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나름의 통계를 제시하는 과학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Birnbaum 1970, 28). 또한 하나의 주어진 사회가 아니라 서구의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분석적인 사회과학이 시작되기 이전인 만큼 토크빌의 평등 개념은 다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평등 개념 중 정태적 평등은 개인과 개인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 상태의 평등을 의미한다. 토크빌이 평등을 논하면서 예를 들어 과거에 비해 빈부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설명을 할 때는 이러한 정태적 평등을 뜻한다. 하지만 토크빌 사회과학의 핵심을 형성하는 평등은 동태적 평등으로서 사실상 현대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 즉 계급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이 높을 경우 계급의식의 형성이 어렵고 계급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진다(Elster 2009, 116). 토크빌은 나름 19세기에 이미 왜 미국에서는 사회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계급 내의 턴오버(turnover)가 무척 높다는 사실에서 찾았던 셈이다.

토크빌이 사용하는 조건(conditions)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정태적 평등과 동태적 평등을 모두 포괄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조건은 정태적인 개인의 상호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고, 동시에 주어진 사회의 동태적 조건 즉 사회이동성을 뜻하기도 한다. 토크빌의 조건의 평등이란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 두 종류의 평등이 모두 발전하는 것이 근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주장이다. 토크빌(1961a, 12)은 “미국과 프랑스 사회가 제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나는 민주 사회의 일반적 특징을 그리려 하였다. 이런 완벽한 민주 사

3) 맑스, 베버, 뒤르켐 세 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맑스(1818-1883년)도 토크빌보다 늦게 활동했다. 토크빌과 맑스는 1848년 혁명을 전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서로 스쳤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베버가 이상형(ideal type)을 사회과학의 방법론으로 확정하기 전에 토크빌은 이미 조건의 평등이 실현된 민주사회 이상형에 비추어 미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현실 사례를 분석했던 것이다. 물론 이상형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경우 미국이 프랑스보다 더 민주적이다. 즉 정태적이고 동태적인 두 차원에서 모두 더 평등하다. 그 때문에 토크빌에게 미국 사회의 연구는 프랑스 사회의 미래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조건의 평등이 발전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Birnbaum 1970, 29). 맑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가장 발달한 영국의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독일 스스로의 미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논리를 편 바 있다.

마녕(1993, 55)은 토크빌의 민주사회론에는 정태적 또는 동태적 평등을 초월하는 민주사회 생활을 지배하는 여론 또는 공통 감각(sensorium commune)이 존재한다고 해석한다. 토크빌(1961b, 166)은 “실제로 부자가 존재하지만 부자 계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부자들은 공통의 정신이나 목적이 없고, 함께 하는 전통이나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속원은 있는데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과거의 부자는 계급 또는 신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지배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집단의 소속원과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달리 말해서 민주적이고 평등적인 공통 감각의 시대이기 때문에 부자의 계급, 빈자의 계급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마녕(1993, 58)은 이를 가리켜 “새로운 불평등은 평등의 결과”라고 토크빌 특유의 아이러니를 표현했다.

토크빌은 조건의 평등을 ‘생성적 사실’이라고 부른다. 평등은 관찰자가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팩트(fact, fait)임과 동시에 평등이 다른 많은 현상을 초래하고 만들어내고 결과하는 근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건의 평등은 그렇다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토크빌은 조건의 평등 자체도 다양한 원인으로 생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엘스터(Elster 2009, 181)가 재해석한 토크빌 사회과학의 틀 속에서 평등을 설명하는 요인은 개인의 욕망과 부러움 등의 미시적 요인, 변화를 위한 기회의 창과 같은 중시(meso-scopic)적 요인, 그리고 제도와 같은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프랑스 사례를 연구하는 토크빌의 『양시앵 레짐과 혁명』은 이 과정을 잘 설명한다. 조건의 평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만들어져 다시 다양한 결과를 낳는, 그럼으로써 근대 사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표명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겔너(1988, 211)는 인류 역사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산업 사회의 커다란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는 평등주의(egalitarianism) 항목을 시작하면서 토크빌이 강조했던 조건의 평등화(equalization) 경향이 현실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켈너의 저작에서 토크빌에 대한 인용이나 활용이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켈너는 같은 구조 기능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맑스와 자신의 차이점을 빈번하게 지적하면서 차별화하고, 또 다른 구조 기능주의자 뒤르켄을 호의적으로 인용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토크빌은 마치 평등과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인용하는 느낌을 준다. 토크빌을 언급한 직후 부연설명에서 그는 조건의 평등화를 평등주의 사상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의 구조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켈너가 실제로 토크빌을 상세하게 탐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로만 이해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21세기 독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근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켈너는 다분히 토크빌의 사회과학을 포괄적으로 수용 또는 계승한 것은 분명하다.

켈너(1988, 62)는 산업사회와 그 이전 사회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으로 산업사회에는 “개인적 책임의 원자적 이상”(atomistic ideal of individual responsibility)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사실 켈너의 개인적 책임의 원자적 이상은 경제-생산, 정치-강제, 문화-지식의 세 영역에서 모두 존재하는, 따라서 산업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다. 켈너가 평등을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는 사실은 『민족과 민족주의』(2006) 목차만 봐도 알 수 있다. 켈너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서론과 농경사회, 산업사회의 장을 제외하고, 모든 장은 민족이나 민족주의를 제목에 달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제6장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엔트로피와 평등”이다. 엔트로피란 열역학에서 도입된 개념이지만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엔트로피는 결국 원자화 되어 있으면서 매우 유사하고 상호 대체 가능한,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의 고등 문화(high culture)를 공유하는 평등한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켈너는 토크빌과 비교했을 때 정태적 평등보다는 동태적 평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켈너는 『쟁기, 칼, 책』(1988, 212)에서 “산업사회가 평등주의적이라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평등주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민족과 민족주의』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일반적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산업화는 이동적이고 문화적으로 균질한 사회를 창출한다. 그 때문에 이 사회는 과거 농경사회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안정적이고 계서적이며 교리적이고 절대주의적 성격이 아니라 평등주의적 기대와 열망을 가

〈표 1〉 주요 사회과학자와 근대 사회의 특징

토크빌	민주사회의 생성적 사실로서 조건의 평등
맑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계급투쟁의 생산관계
베버	법적-합리적 관료제와 정당 폭력 독점 근대 국가
뒤르켐	사회적 분업과 그에 따른 사회 통합 또는 분열
엘리아스	잔인성과 고통에 대한 의식 변화와 같은 문명화의 과정
겔너	산업사회의 기능적 필요에 따른 사회이동성과 평등주의
탈리, 기든스	유럽의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전쟁을 위한 민족국가의 발전

진다(Gellner 2006, 72).

그렇다고 겔너의 산업사회에서 정태적 평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 국민이 하나의 통일된 고등 문화를 공유하게 되고 이 같은 문화적 평등이 시민의 정체성의 중심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고등 문화의 대중화로 요약되는 문화적 평등 수준은 매우 높아진다.

겔너의 산업사회는 본질적으로 평등적일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에서는 각자의 지위가 합리적으로 부여되고, 지위의 변화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위 사이의 차이가 점진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인종을 중심으로 지위를 배분하거나, 과거 인도와 같은 카스트 신분 제도를 유지한다면 해당 산업사회는 엄청난 마찰과 갈등의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등과 사회이동성은 기능적으로 상호 필수적이며, 그 때문에 산업사회는 평등주의가 일반화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토크빌과 겔너는 모두 평등을 근대 사회의 중심에 놓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자 본질로 파악한다. 사회적 전체주의(holism)가 지배하는 인도를 연구한 뒤 개인주의의 서구와 비교한 뒤몽(Dumont 1983) 역시 “근대 사회에서 평등이 실현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평등의 이상은 근대 사회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제시하였다. 물론 평등 또는 평등주의에 도달하는 과정은 다르다. 토크빌은 거시 역사적, 사회적 역학을 중시하는 한편 겔너는 정치경제적 기능의 요구에서 평등주의의 근원을 찾는다. 하지만 근대 사회의 작동을 위해 평등이 ‘운명적’이고 ‘필연적’이라는 사실은 두 사회과학의 공통점이라고 하겠다.

III. 사회적 상태와 인류 역사의 구조

토크빌과 겔너는 독특한 역사관 또는 역사 철학을 바탕으로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이 등장하고 있거나 이미 등장했다고 본다. 토크빌에게 역사는 — 적어도 기독교 유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사는 — 귀족사회에서 민주사회로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역사다. 그리고 위에서 분석한 평등은 민주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겔너는 인류의 역사를 수렵채취사회/농경사회/산업사회로 나누어서 본다. 겔너의 분석에서 토크빌과 매우 유사한 부분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평등화와 평등주의, 그리고 사회 이동성이 필수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사회의 중심축으로 등장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평등이라는 원칙, 경향, 기제, 이데올로기가 일반화되는 것은 인류 역사의 단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겔너는 『쟁기, 칼, 책』의 도입부(1988, 11)에서 역사 철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철학적 고민을 생략하고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읽는 것은 객관적인 시도가 아니라 또 다른 편파적인 철학적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는 지름길이라면서 명확하게 논의와 입장을 밝히고 역사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기의 주어진 사실과 전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 매우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특수한 사실과 전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겔너는 철학적 입장이 때때로 강요하는 역사의 방향이나 필연성, 예측 가능성을 경직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마치 인류가 정해진 경로를 통해 사전에 주어진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고 믿는 것은 실수다.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다양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거시적 틀과 단계를 구분하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토크빌은 겔너가 요구하듯이 사전(事前)적으로 역사 철학을 규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지 않는다. 토크빌이 활동하던 시기는 아직 인문사회과학의 전통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는 사실과 함께, 토크빌이 지식을 과시하는 태도(pédantisme)를 경멸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토크빌의 접근법과 역사 철학은 겔너가 선택한 그것과 그다지 멀지 않다. 겔너(1988, 19)는 역사 철학에서 삼분법(Trinitarianism)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헤겔의 1) 하나의 지배, 2) 소수의 지배, 3) 다수의 지배, 또는 맑스의 1) 잉여와 착취의 부재, 2) 잉여

와 착취의 공존, 3) 잉여는 남고 착취는 제거라는 사례를 제시한다. 또는 생산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폴라니(Polanyi 2001)의 1) 호혜성, 2) 재분배, 3) 시장의 삼분법도 사례로 든다.

겔너 자신의 삼분법은 이미 지적했듯이 수렵채취사회/농경사회/산업사회로 대표적인 명칭만 본다면 매우 정치경제적인 정의로 보인다. 특히 폴라니가 제안했던 호혜성이 지배하는 수렵채취사회, 사회조직을 중시하면서 재분배를 시행하는 농경사회, 그리고 시장의 기제를 통해 생산을 극대화하는 산업사회와 매우 흡사해 보인다. 실제로 정치경제의 생산과 교환만 두고 본다면 겔너의 모델이 폴라니에서 그리 멀지 않다. 하지만 겔너의 모델은 더 종합적이다. 경제-생산뿐 아니라 정치-강제와 문화-지식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식량의 생산과 축적에 기초한 농경사회에서는 안정적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생산에 종사하며, 생산된 식량을 분배, 축적, 그리고 재분배하려면 강력한 강제 제도가 필요하다. 농경사회에서 폭력의 특화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결과다. 마찬가지로 강제의 영역에서 순수한 폭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종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민-귀족-사제의 구분은 정치-강제의 영역과 문화-지식 영역으로 정치경제적 구조가 연결되는 고리이다. 그렇다고 겔너가 획일적인 모델을 모든 문명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경우에 따라 귀족과 사제의 기능이 융합된 사례도 있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농경사회의 조건은 공통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토크빌의 역사 철학은 삼분법이 아닌 양분법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겔너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토크빌이 말하는 귀족사회와 민주사회는 사실 겔너의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구분과 매우 흡사하다. 토크빌의 용어 사용에서 민주사회,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체제(régime politique)를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적 상태(état social)를 지칭한다(Manent 1993, 14). 따라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민주적 정치 체제나 제도를 논의하는 저서가 아니라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특유의 사회적 상태가 미국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21세기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현대 미국 사회 연구』가 더 적합한 제목일 것이다.

사회적 상태란 일반적으로 주어진 현실의 결과이며, 때로는 여러 법의 결과이다. 가장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상태가 현실과 여러 법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는 점이다. 하지만 일단 사회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자체로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과 관습과 생각을 만들어 내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상태는 법과 관습

과 생각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변화시킨다(Tocqueville 1961a, 45).

민주주의나 민주사회가 정치 체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태라는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절대 군주제 아래의 프랑스를 귀족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분석한다는 점이다. 토크빌에게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 상태(état politique)를 사회적 상태에 맞추기 위한 폭력적이고 급격한 조정과정이다.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이 아니었다라도 프랑스는 그 모든 변화를 장기에 걸쳐 이뤘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처럼 사회적 상태는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이다. 그것은 만들어졌고 스스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 민주적 사회 상태는 조건의 평등화라는 현실과 다양한 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토크빌의 귀족제와 민주주의가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태라는 사실은 고대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토크빌에게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은 정치 체제일망정 민주사회의 사회적 상태가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소수의 자유인이 민주적 정치를 누렸지만 다수의 노예는 정치적 권리에서 제외되어 있는 불평등의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귀족 사회에서 작동하는 소수의 정치적 민주제도일 뿐이었다. 하지만 18세기의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절대 군주가 지배하지만 사회적 조건의 평등이 발전하는 민주사회로 이행과정이었다는 논리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토크빌은 분명 이분법적 역사 철학을 보여준다. 서구 문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조건의 평등이고 이것은 새로운 문명적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헤겔의 역사 철학 중 소수의 지배 단계에서 다수의 지배로 발전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토크빌은 실제로 소수의 지배(귀족사회)에서 다수의 지배(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정당하면서도 동시에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소수의 인간만이 누리는 자유는 바람직한 자유가 아니고 인류에 속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누리는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토크빌은 명확하게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다수의 지배는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경고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토크빌의 역사 철학이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삼분법적일 수도 있다. 맑스의 역사 단계에서 잉여도 착취도 없는 단계에서 잉여와 착취가 모두 존재하는 단계만 본다면 이분법적이다.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⁴⁾ 하지만 맑스는 세 번째 단계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로 설정했다. 잉

4) 일부에서는 19세기 사회 분석에 있어 맑스와 토크빌이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토크빌을 보수적 맑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토크빌은 맑스나 뒤르켐과 마찬가지로 사회갈등의 원

여는 존재하지만 착취는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가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는 실현되지 않았고, 그를 위한 시도 역시 무자비하게 실패했다는 점이다. 토크빌이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세 번째 단계를 추측할 수는 있다. 그것은 민주사회에서 조건의 평등화가 완성된 상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자유라는 기제를 통해 민주사회의 한계와 제약을 극복한 상태일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민주사회야말로 토크빌이 이상형으로 생각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크빌은 맑스와 같이 역사주의적 오류에 빠져 인간의 역사가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토크빌은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국처럼 시민사회의 힘으로 민주사회의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거나 적어도 견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프랑스처럼 절대주의적 군주와 국가의 성장으로 원자화된 개인의 자유가 침해를 받는 함정에 빠질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입장과 비전을 사회의 미래에 투영하여 역사를 예측하고 예언하는 지식인의 오만함에서 거리를 둘만큼 성숙했다. 맑스는 이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창립했지만 그의 예언자적 입장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태도였다.

이런 점에서도 겔너와 토크빌은 상당히 유사하다. 겔너는 역사가 정해진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겔너에게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경제적 발전으로 촉약되지 않는다. 그가 산업혁명으로 지칭하는 것은 생산/강제/지식의 복합적 구조가 종합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세 영역에서 모두 일어나야지만 산업혁명으로 조합될 수 있다. 따라서 겔너(1988, 277)는 유럽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 기적에 해당하며, 인류에서 단 한번 일어났지만 그 기술적 우월성으로 인해 전 세계를 바꿔놓았다고 본다. 인류 역사의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로의 혁명은 필연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문화에서 일어난 우연적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산업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도 겔너는 맑스와 같은 확신을 보이지 않는다. 토크빌이 비판적 평등사회의 경향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던 것과 같이, 겔너 역시 생산과 소비를 반복하는 포트래치(potlatch) 사회와 개인 간의 경쟁이 물질에서 벗어나 지위재적 성격으로 승화되는 성숙한 사회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예상할 뿐이다. 이처럼 평등에서처럼 노골

인을 잘못된 분야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토크빌은 이에 덧붙여 독보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의 추소가 갈등을 초래하고 강화한다고 주장한다(Salomon 1959).

적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단계론이 서로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토크빌과 겔너는 무척 유사하다.

IV. 민주사회와 산업사회의 특징

근대사회를 토크빌은 민주사회로 그리고 겔너는 산업사회로 부른다.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토크빌과 겔너는 근대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보면서 체계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상호 연결되어 일관성을 가지고 작동한다는 분석 틀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마닝(1993, 184)은 토크빌의 민주사회는 ‘감탄할 만한 기계’(admirable engrenage)⁵⁾라면서 부분이 아주 잘 들어맞아 전체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회나 체계의 정밀한 분석에 많은 영감을 준다고 설명한다. 겔너 역시 구조주의자답게 산업사회를 형성하는 다양한 영역과 부분이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역사의 구조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면 모든 영역과 부분이 하나의 새로운 원칙과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제를 통해 작동한다는 생각을 함의한다. 겔너(1988, 262)가 규정하는 근대성은 다음 인용문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프로테스탄티즘, 평등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향한 만연한 경향은 보다 균질적인 인류를 향한 운동의 표현일 뿐이다. 이 운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누구나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에토스에 종속되고 또 그것이 사회의 생산적 기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업 구조에서 목적-수단 합리성과 수단의 자유로운 선택 및 잦은 교환이 강요하는 이동성에서 평등주의가 생성된다. 민족주의는 이러한 이동성이 균질적이고 교육을 통해 전달된 문화와 문자 공간에서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문화는 주어진 공간에서 균질적이어야 하며 이 문화를 지지하는 정치적 권력중심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문화의 숙달(mastery)은 진정한 시민권을 위한 유일한 실제 여권(passport)이며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의 핵심이 된다. 이 문화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수용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결정한다. 민주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지식분야에서 특권의 폐지를 반영한다.

5) 프랑스어의 engrenage는 정확하게 톱니바퀴장치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의역으로 기계로 대체하였다.

겔너의 산업사회는 동도서기(東道西器), 화혼양재(和魂洋才)처럼 문화-지식 영역을 보존하면서 경제-생산이나 정치-강제만 도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다. 산업사회는 일종의 종합 세트로서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겔너의 산업사회론이 기계적이고 경직된 이론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겔너(1988, 135)는 중국에서 여전히 한자 중심의 국가 언어와 서로 다른 지역 언어의 공존현상을 지적하면서 일상어와 국어의 일치라는 서구의 현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슬람 문명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분석을 제시하였다(Gellner 1994). 그가 주장하는 산업사회의 주요 경향은 지역적 다양성에 충분한 여유의 공간을 부여하는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성격의 경향들이다.

겔너에게 사회적 이동성과 평등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하나의 균질적인 문화공간을 형성하게 되면 그 안에서 원자화된 개인은 목적-수단 합리성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빈번하게 직업을 바꾸게 된다. 21세기 현대 자본주의에서 흔히 논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민족이라는 문화집단이 강화되는 패러독스를 냉철하게 제시한 논리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겔너는 ‘균질적인 인류를 향한 운동’을 언급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개인주의 확산과 경쟁을 지목하는 듯하다. 물론 이것이 동시에 민족의 약화 및 해체와 세계 차원의 문화적 공간 형성을 동반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말이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19세기의 토크빌(1952b, 126)이 이미 이러한 경향을 명백하게 파악하여 근대성의 특징으로 이해한 사실이다: “사람들은 서로 그 어떤 카스트나 계급, 집단이나 가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특수한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덕목은 협소한 개인주의에 짓밟힐 수밖에 없다.” 마닝(1993, 106)은 이 같은 사회를 “매우 바쁘지만 고독한 산책자로 가득 차 있는” 사회라고 표현했다.

근대사회에서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 과정에서 강력한 압력에 노출된다. 토크빌과 겔너는 공통적으로 근대 사회에서 오히려 가족이나 친척 등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연적 관계가 강화되는 사실을 지적한다. 토크빌(1962b, 205)은 “민주주의가 사회적 관계를 느슨하게 함과 동시에 자연적 관계를 강화한다”면서 “민주주의는 가족을 가깝게 만들지만 동시에 시민들을 분리시킨다”고 설명했다. 겔너도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이동성이 높은 익명의 사회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중간 규모의 공동체의 중요성이 쇠퇴하고 축소되면서 한편에서는 거대하고 교육을 통해 구성된 문화 공동체의 승배, 즉 민족주의로 발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개인적 관계, 즉 흥취적이고

일회적이고 도구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의 발전으로도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민족주의 이론가 켈너는 산업사회가 민족주의를 초래한다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주로 알려졌지만 여기서 부각되는 부분은 산업사회의 이동성과 평등주의, 그리고 그로 인한 개인의 원자화가 다시 민족 공동체의 부상과 개인적 관계의 강화라는 양면성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세밀한 분석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논리의 전개는 토크빌과 매우 유사하다.

켈너의 민족주의 이론 틀에서 민족의 형성은 두 가지 동시적 기제에 의해 진행된다. 하나의 과거 농경사회에서 존재하던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엘리트 집단과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의 종적인 경계가 사라지는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별로 횡적으로 형성된 중·소규모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범위의 공동체가 새로 형성되는 변화이다. 켈너에게 민족주의란 이 두 기제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이다. 놀라운 점은 토크빌 역시 민주사회에서 민족주의의 부상에 대해 설명한다는 점이다.

토크빌(1962b, 249)은 민주사회에서는 “명예의 근원이 민족 그 자체의 특수한 필요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명예는 민족들 사이에 특정 민족의 개별성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토크빌이 활동하던 19세기의 맥락에서 명예란 귀족사회의 전형적인 가치다. 토크빌은 민주사회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바람직하지만 명예와 같은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쉽게 여긴다. 토크빌은 긍정의 가치로서 명예는 이제 민족 차원에서만 남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민족주의의 강화를 예측한다. 토크빌의 사고에서 애국주의(patriotisme)가 귀족사회보다 민주사회에서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자에서는 민족 내의 일상에서 명예가 중요하지만, 후자에서는 대중 속에서 명예를 지킬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명예는 민족들 사이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Manent 1993, 104). 명예를 지키기 위한 민족의식의 강화나 민주사회에서 민족주의의 폭발을 예견한 토크빌의 부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두 국가는 서로 비슷하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민주적 평화론’의 선구자 역할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켈너에게 근대 국가는 농경시대의 강제력 조직으로서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공통의 고등문화 공간을 형성하여 국민을 교육하고 근대적 생산 체계에 적합하도록 균질화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이다. 군인과 외교관의 정치-강제 영역의 국가를 넘어 교사와 지식인의 문화-지식 영역의 국가가 크게 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토크빌 역시 켈너가 말하는 지식국가의 부상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경고했다. 토크빌은 민주사회에서 거대한 국가의 형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과거 사회체(社會體, corps social)에서 이차적 권력이나 신분제, 계급, 직업, 가문과 개인에게 분산되어 있던 권위와 영향력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통합되어 거대한 중앙 권력으로 이끌려 흡수되었다. 세상에서 이 정도의 권력은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에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Tocqueville 1952a, 85).

이 거대한 권력 집단에서 핵심을 형성하는 것은 베버류의 합법적 폭력의 독점이 아니라 행정력이다. 토크빌은 새로운 사회에서 골격을 형성하는 것은 관료들이며 이들이 신사회 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제도를 잘 알고 이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토크빌은 근대 사회의 복지 국가 발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경향의 전초 또는 논리적 기초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람들이 자유보다 평등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를 명예와 같은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즐거움에 탐닉한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평등에 대한 열정은 곧바로 가장 절대적인 전제주의로 연결되어 거대한 국가의 형성으로 연결된다는 논리이다.

평등이 지배하는 민주사회는 리바이어던(leviathan)과 같은 강력한 국가를 낳을 수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자체가 다수의 전제로 추락할 수 있다. 매개 집단이 없이 원자화된 개인은 여론이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을 쉽게 추종한다. 토크빌(1961b, 267)은 미국사회에 독립적인 정신과 사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한탄한다. 너무나 쉽게 다수의 의견을 추종해 버리기 때문이다. 토크빌의 이런 시각은 이후 프랑스 사회학자 타르드(Tarde 1901) 등을 통해 대중사회의 이론으로 발전하였고, 콘하우저(Kornhauser 1965)의 ‘대중사회 정치론’ 등으로 계승되었다. 지식사회학의 측면에서도 토크빌은 민주사회의 경향으로 모든 현상에 하나의 원인을 찾으려는 모습을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은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화된 민주사회는 유사한(semblable) 인간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평등으로 통합된 사회는 기본적으로 획일적인 인간을 구상하고 전제하는 사고의 경향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향이 다시 세계관으로 발전, 확대,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겔너는 여론이나 정치적 판단 등의 측면에서 토크빌만큼 다수의 지배를 우려하지는 않았다. 다만 겔너의 세 영역에서 문화-지식의 영역은 경제-생산의 평등주의와 정치-강제의 민족국가 부상에 해당하는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핵심은 이성으로 통일된 자연이라는 세

계관이다. 이성(Reason)은 모든 인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공통의 능력이고,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은 잘 정리된 현실로서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이성은 정당한 지식을 독점한다. “이성은 자연을 드러내고, 자연은 이성을 왕좌에 앉힌다”(Gellner 1988, 134). 토크빌의 민주사회가 여론의 통일을 강요한다면, 겔너의 산업사회는 하나의 원인을 찾으려는 토크빌 민주사회의 경향을 반영하듯이 과학적 지식의 독점의 시대를 알린다.⁶⁾

V. 근대의 조건으로서 조건의 평등

이 연구는 19세기 민주주의 사상가 토크빌과 20세기 민족주의 이론가 겔너가 근대사회에 대해 매우 유사한 분석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첫째, 토크빌과 겔너는 모두 평등을 근대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파악한다.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근대사회에서는 정태적 및 동태적 평등이 모두 발전하고 평등주의 사상이 지배적으로 부상한다. 둘째, 토크빌의 귀족사회/민주사회의 이분법 시각이나 겔너의 수렵채취사회/농경사회/산업사회의 삼분법 시각은 모두 전(前)근대/근대의 질적 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역사 철학을 공유한다. 셋째, 평등을 축으로 한 근대(민주사회/산업사회)는 세속화, 추종주의, 이성의 독점적 지배, 민족주의 등의 공통적 경향을 드러낸다.

두 사상가 및 이론가를 철학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더라도 공통점은 쉽게 나타난다. 엘스터(2009, 6-7)는 토크빌이 19세기에 지배적이었던 사회과학의 오류를 모두 피해나갔으면서 전체주의(holism), 유기주의(organicism), 기능주의, 목적론(teleology)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로서 헤겔의 이성이나 맑스의 계급, 뒤르켐의 ‘사회적 사실’(faits sociaux) 등 개인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거시적 원인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유기주의는 사회를 생물체와 비슷하게 일종의 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기능주의는 원인으로 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실현되어야 하는 필요한 사회적 기능으로 설명을 대신하는 경향이다. 목적론은 역사가 방향과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대표 주자 엘스터가

6) 토크빌(1961b, 91) 역시 역사과학의 영역에서 통합적 사고가 지배하는 것을 우려했다: “민주사회에서 사는 역사가들은 하나의 사실에 대해 하나의 거대한 원인을 제시하도록 훈련받은 것은 물론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된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토크빌을 최초의 사회과학자로 선택한 데는 토크빌이 위에서 지적한 거시적 설명 틀보다 는 미시적 기반과 개인적 선택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엘스터의 토크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켈너에게 적용하더라도 크게 차이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켈너가 엘스터의 네 기준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는 부분은 기능주의적 성향일 것이다. 켈너는 산업사회의 기능적 필요가 민족주의를 초래한다는 설명 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기능주의자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켈너의 설명 틀은 『민족과 민족주의』에 드러나는 거시적 기능주의에서 멈추지 않는다. 『쟁기, 칼, 책』의 켈너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탐구하면서 우연과 필연의 상호 관계에 대해 복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켈너는 또한 사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거시적 전체주의와 미시적 개인주의를 적절하게 혼합하며, 맑스나 헤겔류의 목적론에서 벗어나 있다. 켈너는 훨씬 겸허하게 미래의 방향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언급할 뿐이다. 켈너(1994)의 근대사회의 틀은 또한 신고전과 경제학의 커다란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유기체적 균형론에 빠지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차이를 명백하게 인식한다. 이처럼 평등과 역사 단계론, 근대 사회론의 공통점과 유사성은 사실 방법론적 기반을 공유하는데서 유래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근대성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자로서 토크빌과 켈너의 공통점을 부각시켰고, 그 공통점을 통해 21세기 사회를 연구하는 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도움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민감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부족한 점을 많이 드러냈을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점을 부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과학적 영감이 크다면 이러한 단점은 잠시 잊어도 커다란 실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토크빌과 켈너의 근대성에 대한 성찰은 기본적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분석과 설명의 틀은 비서구 사회의 근대성, 특히 동아시아처럼 서구적 근대화 성공한 지역과 사회의 근대성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세기에 걸쳐 조건의 평등이 근대의 조건이라는 토크빌과 켈너의 판단이 정확하다면, 비서구 사회에서의 근대 역시 조건의 평등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서론에서 토크빌과 켈너에 대한 비교 연구의 목적은 근대화의 과정과 21세기 근대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영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을 마치면서 근대의 핵심으로 조건의 평등이라는 시각이 동아시아 사회를 연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본다. 우선 근대화는 사회 조건의 평등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회 질서의 해체와 신질서의 설립 과정을 분석한다면, 그 동

안 근대 국가의 건설과 자본주의 발전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연구와 거시적 담론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근대화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적 경쟁 현상은 서구의 시각에서 병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으나 정태적, 동태적 조건의 평등과 이를 지향하는 평등주의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토크빌의 시기 신분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는 유럽에 비해 신 사회 미국에서 훨씬 조건의 평등이 발달했듯이, 전통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근대 질서를 만든 동아시아가 더 강한 조건의 평등을 실현 또는 추구한다는 문제의식도 가능하다. 토크빌과 겔너의 평등과 민족주의의 관계 분석도 동아시아에 강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동아시아는 유럽과 비교했을 때 보다 장기적으로 발달된 형태의 종족적 균질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훨씬 단기간에 체계적, 집중적, 압축적인 사회 문화적 균질화의 운동에 노출되었다. 그 결과, 사회적 중간 또는 매개 집단이나 공동체의 존재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과 같은 리바이어던 국가와 종속적인 원자로서 개인의 현실을 가능하게 한 것일 수도 있다. 한국 역사와 사회의 분석에 있어서도 토크빌과 겔너의 조합은 반상(班常)의 차별을 폐지하고 평등을 주장했던 동학운동이나 이북 및 호남 지역에서 평등사상의 기독교가 강력하게 뿌리 내린 사실 등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토크빌과 겔너의 조합은 유럽이나 유럽인이 진출한 신대륙사회뿐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를 연구하는 데도 좋은 문제의식과 질문을 제공해 준다. 특히 토크빌과 겔너를 분리하여 각각의 문제의식을 적용하는 것보다 토크빌의 조건의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을 겔너처럼 평등을 현대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연결하는 발달된 사회과학적 이론과 접목시켰을 때 더욱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투고일 2012년 8월 17일

심사일 2012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20일

참고문헌

- 서병훈. 2011. “토크빌의 새로운 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5집 4호, 69-87.
 이용재. 2009.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 토크빌 다시 읽기.” 『서양사연구』 40집, 63-93.

- 홍태영. 2001. “토크빌과 민주주의의 패러독스.”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67-83.
- Aron, Raymond. 1967. *Les étapes de la pensée sociologique*. Paris: Gallimard.
- Birnbaum, Pierre. 1970. *Sociologie de Tocqueville*. Paris: PUF.
- Breuilly, John. 2006. “Introduction.” In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2nd ed., xiii-liii. Oxford: Blackwell.
- Dumont, Louis. 1983. *Essai sur l'individualisme*. Paris: Seuil.
- Durkheim, Emile. 2007.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Paris: PUF
- Elias, Norbert. 1982. *The Civilizing Process Vol II. State Formation and Civilization*. Oxford: Blackwell.
- Elster, Jon. 2009. *Alexis de Tocqueville, The First Social Scienti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llner, Ernest. 1988. *Plough, Sword and Book. The Structure of Human History*. London: Collins Harvill.
- _____. 1994. *Conditions of Liberty: Civil Society and Its Rivals*. London: Hamish Hamilton.
- _____. 2006. *Nations and Nationalism*, 2nd ed. Oxford: Blackwell.
- Giddens, Anthony. 1985. *The Nation State and Violence*. Cambridge: The Polity Press.
- Kornhauser, William. 1965.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London: Routledge.
- Lamberti, Jean-Claude. 1983. *Tocqueville et les deux démocraties*. Paris: PUF.
- Manent, Pierre. 1993. *Tocqueville et la nature de la démocratie*. Paris: Arthème Fayard.
- Mann, Michael. 1986.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 1. A History of Power from the Beginning to AD 176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 2. The Rise of Classes and Nation-States, 1760-19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2008. *The Communist Manifesto*. Pathfinder.
- Nisbet, Robert A. 1993. *The Sociological Tradition*.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Polanyi, Karl. 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 Salomon, Albert. 1959. “Tocqueville.” *Social Research* 26. No. 4 (Winter), 449-470.
- Schleifer, James T. 1980. *The Making of Tocqueville's “Democracy in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Tarde, Gabriel. 1901. *L'opinion et la foule*. Paris: Alcan.
- Tilly, Charles.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Oxford: Blackwell.
- Tocqueville, Alexis de. 1952a.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Tome 1*. Paris: Gallimard.

_____. 1952b.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Tome 2. Paris: Gallimard.

_____. 1961a.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Tome 1. Paris: Gallimard.

_____. 1961b.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 Tome 2. Paris: Gallimard.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_____. 2010.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Create Space.

ABSTRACT

The Equality of Conditions and the Condition of Modernity: A Comparative Study of Tocqueville and Gellner

Hong-sik Cho | Soongsil University

This article underlines the fact that the 19th century thinker of democracy, Alexis de Tocqueville, and the 20th century theoretician of nationalism, Ernest Gellner, share a similar analytical framework for modern society. At first, both consider equality as the critical characteristic of modernity. The society is not only based upon the principle of equality, but develops also both static and dynamic equality along with the progressive domination of egalitarian ideology. And then, they both insist upon the qualitative transformation from pre-modern to modern society, suggesting a similar philosophy of history. The toquevillian binary distinction of aristocratic/democratic society matches the gellnerian trinitarian division of hunter-gathering/agricultural/industrial society. Finally, the modern(democratic and industrial) society with equality as its founding principle entails the tendencies of secularization, conformism, monopolistic domination of reason, as well as of nationalism.

Keywords: Modernity, equality, democracy, Tocqueville, Gellner